



쌍용자동차

보도자료

2019년 4월 29일(월)

쌍용자동차, 2019년 1분기 경영실적... 매출 9,332억 원

- 렉스턴 스포츠 칸 및 코란도 등 성공적 신차 출시 통해 1분기 매출 역대 최대 실적 기록
- 렉스턴 브랜드 판매 비중 확대 등 제품 믹스 개선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경영실적 개선
- 신규 라인업 확대 통한 잠재력 큰 해외 신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판매 확대와 수익성 개선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예병태; www.smotor.com)가 지난 1분기에 창사이래 1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경영실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올해 1분기에 ▲판매 34,851대 ▲매출 9,332억 원 ▲영업손실 278억 원 ▲당기순손실 261억 원의 경영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렉스턴 스포츠 칸 및 코란도 등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신차의 성공적인 론칭에 힘입어 1분기 판매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7%, 15.4% 증가하면서 영업손실도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실적이다.

특히 1분기 판매는 경쟁력 있는 신차 두 차종이 출시되면서 내수판매가 지난 2003년 1분기(39,084대) 이후 16년 만에 1분기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한 것은 물론 수출 역시 전년 대비 12.4%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매출 또한 렉스턴 스포츠 칸 출시 등 렉스턴 브랜드의 호조세로 판매 비중이 50.8%로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15.4%의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제품믹스 변화를 통해 창사이래 1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손익실적도 신제품 및 기술 개발 투자 확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와 경쟁 심화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영업손실은 개선추세를 나타냈다.

현재 렉스턴 스포츠 칸에 이어 코란도의 글로벌 론칭을 시작하고 있는 쌍용자동차는 신규 라인업을 통한 시장 확대 및 신홍 시장 공략 강화 등 글로벌 판매 확대를 통해 경영실적을 한층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쌍용자동차 예병태 대표이사는 “지난 1분기 신차출시를 통해 창사이래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다소 개선된 경영실적을 나타냈다”며 “앞으로도 신규 라인업을 통해 잠재력 큰 해외 신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판매 확대와 함께 수익성 역시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 2019년 1분기 판매 현황

(단위 : 대)

구 분	2019년 1분기	2018년 1분기	전년 동기 증감율(%)
판매대수	34,851	30,664	13.7%
내 수	27,350	23,988	14.0%
수 출 (Full-KKD)	7,501 (1,224)	6,676 -	12.4% -

■ 2019년 1분기 손익 및 재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1분기	2018년 1분기	전년 동기 증감율(%)
매 출 액	9,332	8,088	15.4%
영업손실(이익)	-278	-313	손실 감소
법인세 차감전 손실(이익)	-261	-342	
당기순손실(이익)	-261	-342	

* 同 실적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